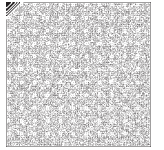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12호 2020년 11월 15일(가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1테살 5,1-6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마태 25,14-30<또는 25,14-15.19-21>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 서로를 돌본다면 이 세상은?

오늘 복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마태 25,21 참조).

올 설 연휴를 지낸 직후부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많은 이가 자신의 안위에 몰두하며 마스크를 쓰고 누가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앓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스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집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모아주고 제안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나 건물에 대한 방역작업을 시민 스스로 모여 솔선수범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내(가족)가 소유한 자산(부, 재능)은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눠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숭배(재물, 권력, 쾌락, 국가 등)하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3항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며, 교황님의 담화 주제는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위에 차별받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연령 차별, 계급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직업 차별, 학력 차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고 선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43항).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후세, 파키스탄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잠언 31,20)

손안에 올려진 몽당연필은 약소하나 하얀 노트 위에 적어 나갈 자신의 미래는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커진 꿈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최고의 권위와 자존감은 검손에서 나오는 섬김의 마음에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얼마 전 슈퍼스타 'BTS(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 K-POP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고, 한류 문화의 자존감을 살려주어 한국 음악사에도 대기록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다양한 음악 장르 가운데 유난히 트로트가 대세를 이루며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한 방송사에서 특별기획한 프로그램 <대한민국 어게인>이 트로트 열풍에 가세해 추석 연휴를 달구며, 한가위 보름달보다 높이 뜬 국민가수 '나훈아'의 밤을 연출해 냈습니다.

공연 중 '1등 국민', '국민의 힘'을 치켜세우며 쏟아 낸 사이다 발언들도 화제가 되었지만, 열정과 진정성 있게 펼쳐진 무대가 많은 국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고, 답답한 우리 마음속을 시원하게 대변해주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프로 중의 프로임을 확실하게 입증시킨 나훈아 씨에게 많은 언론 매체는 이름 앞에 '가황(歌皇)'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 중 한 사람인데, 소신 있는 삶의 방식과 무엇보다 인간 나훈아의 식지 않는 열정,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채찍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화제가 되고, EBS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뽕수'마저 '뽕훈아'로 변신하는가 하면 유튜브에는 새로운 버전의 '테스형!' 커버송들이 가득합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특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테스형!'은 2,500년 전 진리를 추구하며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의 현실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서양철학의 시조로 불린다 한들 코로나 태풍 속에 이어지는 삶의 고통에 어떠한 답을 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좋은 하소연의 대상이자 답을 찾는 길이지요. 아집과 독선, 편견이 독버섯처럼 피어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자니,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경구 "너 자신을 알라"에서 더 나아가, '검손에서 나오는 섬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김의 아버지이자 아이콘이신 예수님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보여주시듯 최고의 권위와 자존감은 섬김과 검손의 리더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경희 올리벳타
한강성당

2020.15.9.

죽음·심판·천국·지옥

그리스도교 사말교리(四末敎理)

11월이 되면 싱싱함을 뽐내던 여름의 나무들이 다양한 색깔의 단풍으로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겨울을 준비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끝을 준비하는 이 시기, 교회는 위령 성월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

난 이들을 기억하고 각자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네 가지, 곧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사말”(四末)에 관한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1. 죽음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는 태초에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지은 범죄, 곧 원죄(原罪)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인간이 걸어온 지상 생활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음 이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환생설(還生說)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2. 심판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육신과 분리된 불멸하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직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개별심판’(사심판)이라고 하고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최후심판’(공심판)이라 합니다. 개별심판은 살아있던 동안 행실과 믿음에 대한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연옥, 천국, 지옥에 들게 됩니다. ‘최후심판’

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총체적 심판으로, 이 심판의 기준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입니다.

3. 천국

천국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4. 연옥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화를 뜻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증언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 곧 연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죽은 이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5. 지옥

지옥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거부하여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지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삶을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회개로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니 세상에서 갇히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 장례미사의 위령갑사송 I 중에서 -

오늘(11월 15일)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2020년 11월 한 달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은 QR 스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도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찬미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뉘웃음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토포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랑 · 섬김 ·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빛!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7.16. 서울대학교장 추기경 염수정 인준)

교구정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나경환 신부 제3회 개인전: 1전시실
 가영시아 사진전: 2전시실
 전시일정: 11월18일(수)~23일(월)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홍금’
 때: 매월 셋째주(화) 11월17일 오전 11시(157화)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안내

주제: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었나이다”
 (미혼모 · 부를 위한 예방적 대안과 회복적 대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곳: 11월17일(화) 14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명동) / 문의: 02)460-7641

故 도요안 신부님 선종 10주기 알림

2020년 11월22일은 한국에서 50년간 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해 헌신하신 도요안 신부님(살레시오 수도회)의 선종 10주기입니다. 당일 ‘노동 · 이주 사목의 교회적 사명과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지인을 모실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며, 교우분들의 기도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은 아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관 문의: 02)924-2721 노동사목위원회, 02)924-9970 이주사목위원회

1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11월21일(토) 10시30분 매월 세번째(토)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제38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코로나19와 원헬스: 동물, 인간 그리고 지구의 건강 / 강사: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신청: 11월19일(목)까지 60명 선착순 마감
 (온라인 <https://bit.ly/2HCqMhH> 로 신청)
 유튜브 생중계 참여 가능: <https://bit.ly/2EZafbf>
 때, 곳: 11월2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문의: 02)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2020 대림특강: 미술사를 움직인 예술가들’ 신청안내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예술 속에서 참신앙을 느낄 수 있는 대림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12월2일~2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12월2일	‘안드레이 루블로프와 러시아의 황금 시기’	장궁선 신부
12월9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형성	김광현 교수
12월16일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성당	가베노길작가
12월23일	그리스도교 미술의 ‘땅’ 상징을 통해 보는 위기의 시대 대림의 의미	하영유 수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분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직원모집

명동법집(무료급식소) 조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필수)
 분야: 주방조리(계약직) / 대상: 일요일 근무 가능자(필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단체 급식 조리경력자(우대)
 서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참조 이메일(obos-hr@obos.or.kr) 및 우편(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사담당) 접수 / 11월24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잠실7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 문의: 02)416-7286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인원 주간관리직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야간 관리직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11월20일(금)까지 우편(우 05573,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26 잠실7동성당) 및 이메일(baeanto1955@seoul.catholic.or.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주말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올리베타도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	수시	수도원(고성)	010-5301-1319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21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11월22일(일) 14시	가톨릭회관 526호(아프리카잡미아선교후원회)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12월12일(토)~20일(일)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예물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1일~30일 / 문의: 010-5482-3217

고통의 성모 묵상 피정(서울 마리아 학교)

때, 곳: 11월27일(금)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미사 있음, 회비 없음 / 문의(접수): 010-9620-4820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

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때: 12월23일(수) 16시30분~25일(금)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회비: 24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계)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때: 11월22일~25일, 12월5일~7일, 12월11일~13일,

12월31일~2021년 1월3일(연말연시·해돋이·해돋이피정)

어르신 사발 피정 '죽음-웨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11월24일(화) 10시~13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월 셋째주(화) 10시~13시

청년 대림 피정

주제: 다시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위로

강의: 최승정 신부 / 문의: 010-6340-2696

곳: 샬트르 성마로로 수녀회(주최) 서울광구 바로로

교육관 / 대상: 35세 이하 남녀 청년(선착순 25명씩)

1차	11월28일(토) 14시~18시30분
2차	11월29일(일) 14시~18시30분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4차	12월25일(금)~2021년 1월2일(토)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가정성교회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2월2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회비: 1만원 김밥 제공, 식수 준비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 신심미사	12월5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때, 곳: 11월27일(금)~30일(월)·12월4일(금)~7일(월)·12월18일(금)~21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피정지도: 노경덕 신부(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대림 온라인 자비와 회복 세미나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때: 12월1일부터 매주(화·금) 총 8회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월16일(월)~2021년 2월10일(수)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02)745-8339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교육, 유아, 특수, 직업특수, 평생, 진로진학상담 / 모집: 11월9일(월)~22일(일)

면접: 11월27일(금) 18시30분 / 문의: 02)2164-4173, 4176, 4787(https://ged.catholic.ac.kr)

2021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1월30일(월)~12월11일(금) / 전형일: 12월23일(수),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http://songsin.catholic.ac.kr/music)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5학기)

모집전공: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기간: 11월27일(금)까지 / 면접일: 12월4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2021년 전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17일(화)까지 / 면접일: 12월4일(금) 19시

온라인 접수(www.uwayapply.com)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4학기제),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중독포함), 노인복지(요양보호포함), 정신건강복지(발달장애포함)

곳: 서울 성모병원(서초구 반포대로222) 단지 내

문의: 02)2258-7723 / 대학원 홈페이지: https://welfare.catholic.ac.kr/welfare/index.html

모집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자원봉사자(사무직) 모집

여성 교육, 엑셀·워드 가능한 분, 연령 제한 없음

기타문의: 02)773-3030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21년 예정인) 가

톨릭 신자 /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오디션: 11월22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11월19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강의,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때, 곳: 11월16일(월) 13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1월20일(금) 10시~13시 /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곳: 가톨릭회관 / 코로나 대응 위해 40명 제한 접수 필수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인내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2021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름

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주차 100대, 신도림역 2번

출구 서틀버스 운행 가능), 소형 혼인미사 및 기념미

사를 위한 작고 예쁜 경당(10~20명 참석 스물웨딩, 각

종 가정 기념 미사(은혼·금혼·환갑·칠순)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833-9439 도림동성당 사무실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가족치료 수지메니어그램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0세 이상 참가 가능(상시)
청소년 감정코칭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처치유 프로 그램으로 진로 코칭으로 유도됨(상시)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 (불안·우울·불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제: 신뢰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때, 곳: 11월24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개인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11월27일~12월26일(금) 10시~15시(5회)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영성

소장: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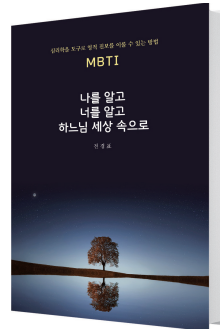


신간

겨자씨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틈새책방 | 152쪽 | 1만4천원
 문의: 02)6397-9452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님 말씀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을 엮은 책이다. 씨 뿌리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 등 성경 속 비유들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알려주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등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전한다.



신간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하느님 세상 속으로

전경표 지음
 기쁜소식 | 196쪽 | 1만4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MBTI의 16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유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초·중급자들과 신앙 안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간

새 인간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청하다

서한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00쪽 | 2만2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현대인들의 형식화된 신앙 속에서 거의 죽어버린 인간 예수님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애쓴다. 지상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은 이들, 특별히 사도들이었던 열두 제자들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타당함'을 제시한다.



신간

교회법해설(전6권)

정진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6426쪽 | 19만1천원
 문의: 02)740-9718

교회는 교회법전을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의 한국어 교회법 해설서 전집은 주교직 수행 중에 무려 20여 년에 걸쳐 총 15권으로 집필한 것으로 올해 2020년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이하여 총 6권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



연주회

제182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02)587-8111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82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가 12월1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립합창단과 바로크 시대 음악 연주 단체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인류의 위대한 음악 유산으로 평가받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선보인다.



영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문의: 010-8895-4696, 010-4284-6348
 현장 결제 시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 시 주보 1부로 1천 원 할인 (중복 할인 불가/서울극장에서만 할인됩니다)

다큐멘터리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가 11월19일(목)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한 평 독방에서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카르투시오 수사들의 세상을 향한 끝없는 기도 와 특별한 사랑이 수도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만에 지친 우리를 찾아온다.

교무금 책정·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자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성인들의 유해가 모여져 있는 지하성지는 11월 8일(주일)부터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11월 1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의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 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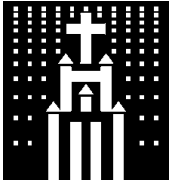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0년 1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오후 2시 미사는 세례 당사자와
대부모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
께서는 다른 시간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염수정 추기경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11월 30일(월)은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추기경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교를 위한 기도
- * 미사참례, 묵주기도, 화살기도, 희생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명동 보름장 개장

·일시 : 11월 1일~11월 29일 매주 주일 10:00~15: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가톨릭회관 앞마당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보실
때는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1월 2일 ~ 11월 8일 : 400,000원)
누계 : 1,855,649,203원

권 분 생 : 200,000원 | 익 명 : 100,000원
김 영 애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세계 기난한 이의 날 기도 ◆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찬미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몫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귄 · 섬김 ·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벗 !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7.16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인준

◎ 성당 내 음식 및 음료수 반입 금지

성당 안은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성당 안에서 음식물과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영성체 한 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공복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성전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2-11/8).....21,612,000
· 연중 제 32 주일 헌금.....15,340,000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5,974,000
· 감사헌금 (11/2-11/8).....1,024,000

고 니콜라오 / 김 바오로 / 김 안드레아
박 모니카 / 박 베드로 / 박 아녜스 / 이 켈마
임 사무엘 / 조 마리아막달레나 / 최 안나
허 아녜스 / 익명(2)